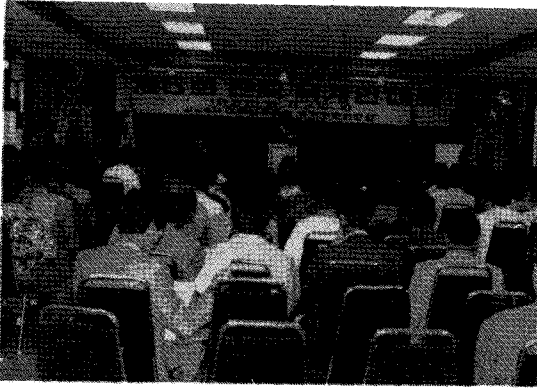


# 대한 양계협회

소식

## 제5회 전국 육계인 대회 개최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본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강석부)는 육계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육계인들의 단합을 위해 지난 9~10일 양일간에 걸쳐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전국 육계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우수육계인 사례발표 △육계업 당면과제 토론 △육계인의 밤 순으로

진행됐는데 최근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마련에 대한 토의가 주를 이루었다.

첫날 벌어진 육계업 당면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수입개방을 앞둔 육계인의 대응자세 △육계불황 타개책 △육계계열화 사업의 발전 방향 △육계업에 대한 정책지원의 문제점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다음날에는 육계인들의 불황타개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현 사육규모의 30% 감축 입식 △무허가 부화장에서 생산된 병아리 입식 중지 △사육중인 육계 조기출하 △자조금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우수육계인으로 선정된 최길영(영남농장), 박원모(금지개농장), 김수용(계룡농장), 이상정(대흥농장)씨 에게는 본회에서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공로로 인정하여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 닭고기 불황 타개를 위한 협조요청 각종 T.V 및 언론매체에

본회는 육계 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15만 양계농가를 대표해서 각종 T.V 및 언론매체에 닭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육계불황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했다.

-다 음-

국민소득증대에 따라 육류의 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국의 15만 양계농가는 그동안 크고 작은 가격파동을 수없이 겪는 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국민식생활 개선 및 국민보건 향상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과 긍지

를 갖고 값싸고 영양가 높은 닭고기를 충분히 생산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근자 육계산지가격이 생산비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폭락되어(경영비 개념의 육계생체 1kg 생산비는 991원인바 현재 육계생체 1kg당 가격은 400원대임.)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육계농가가 도산되었거나 도산지경에 처해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육계산업기반은 완전 붕괴되고 말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육계불황은 생산과잉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전반적인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예년 수준보다 소비가 크게 위축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회에서는 생산감축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는 등 오늘의 불황을 스스로 해결코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현재 사육중인 출하적기에 도달한 닭의 체화로 싼값에도 팔수없는 실정 이어서 육계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소비를 촉진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귀사에 협조를 요청(소비촉진홍보)하오니 우리 모두의 건강관리는 물론 농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계 생산농가를 도와준다는 높은 뜻에서 닭고기를 많이 먹어 소비를 촉진(각 가정마다 주 1회 이상 닭한마리 더먹기, 각 기관, 단체, 회사 구내식당에서 주 1회 이상 닭고기를 이용한 요리 취급 등)시켜 육계불황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도(홍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육계불황 타격을 위한 건의서 제출 축산국장 방문

본회 육계분과 위원회(위원장 강석부)는 지난 26일 각 지부·분회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대책회의(22일)에서 결의한 건의서를 축산국장을 방문,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강석부 부회장은 불황타격을 위한 대책을 모색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 '93 한국양계박람회 추진위원회 개최 참가신청 오는 12월 25일 까지



본회는 '93년 8월19~21일(3일간) 한국종합전시장(KOEX) 본관 3층(대서양관 5, 6실)에서 개최될 「'93한국양계박람회」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추진위원회(위원장 오봉국)를 개최하여 세부계획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91년 제1회때 보다 규모가 크게 열릴 '93년 제2회 박람회에서는 전시행사, 홍보행사, 양계인 대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각종행사가 펼쳐진 예정이며 전시참가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25일까지 이다.

### '92 제1차 병아리 감별사 시험 실시 오는 12월 4일, 강남 병아리 감별학원에서

본회가 실시하는 병아리 감별사 시험이 오는 12월 4일 오전 9시부터 강남 병아리

감별학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92 제1차 초생추 감별사 자격시험에 이어 '92 초생추 감별사 경진대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 소비홍보자금 및 수매비축자금 지원 홍보자금 2억, 수매비축자금 12억 각각 지원 키로

본회가 양계산물의 소비 촉진과 육계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홍보 자금과 수매비축 자금 지원을 농림수산부에 요청한 결과 홍보자금 2억, 수매비축자금 12억을 협을 통해 각각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본회는 T.V 광고를 통해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리려는 작업이 진행중이며 수매비축 자금은 축협에서 공영수매비축 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육계분과위원회 및 긴급회의 개최 육계불황 대책마련에 부심



10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강석부) 및 육계불황에 따른 긴급회의가 지난 22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당초 예정일을 앞당겨 마련한 이 자리에서는 육계사업의 모순점을 보완하지 않는 한 육계불황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예측하고 대정부 건의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에 전달할 것을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강석부 위원장은 수입쇠고기가 국내에 싸게 들어옴에 따라 닭고기의 소비위축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수매비축 자금으로는 일괄적인 수매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강조하고 소비창출을 위한 홍보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했다.

또 이번과 같은 불황이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답습하고 있어 이제는 먼 훗날을 내다볼 수 있는 육계인들이 되어 사육수수조절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전국 채란인대회 개최키로

10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구)가 지난 14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1월 12, 13일 양일간에 걸쳐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전국채란인 대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한편, 10월들어 특~경란간 22원으로 좁혀졌고 특히, 특~대란간의 가격차가 3원으로 좁혀짐에 따라 특란체화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